

# 백두산과 길림지역의 동굴 현황

- 중국동굴탐사 활동을 중심으로 -

윤 정 모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I. 서론

장백산과 길림지역의 동굴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보았으나 자료가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문헌을 찾아서 미흡하지만 여기 소개 하고자 합니다.

장백산은 각종 문헌에 전해오는 백두산의 호칭들 중의 하나로 백두산 정상에 눈이 덮여 멀리서 보면 머리 위에 흰 눈을 이고 있어 노인의 백발에 비유했고, 오랜 기간 흰 눈이 덮여 있으므로 장백산이라 불려 왔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백두산지역의 룡문대굴, 백령대굴과 동룡굴 동굴에 관한 자료를 설명하고, 길림지역의 관마용동 동굴에 관하여 그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백두산과 묘향산 지역

### 1. 백두산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자리 잡고 있다. 백두산(白頭山)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백두산맥, 중국 측에서는 장백산맥에 속하는 산 가운데 최고봉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량강도 삼지연호 북서부(북위 42°7', 동경 128°5'의 지점)에 위치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성산이다. 산 높이는 2744m이고 주위에 고봉을 거느리고 있다.

각종 문헌에 전해오는 백두산의 호칭들을 살펴보면 정태산(征太山), 도태산(徒太山), 보태산(保太山), 태백산(太白山), 장백산(長白山), 백산(白山), 개마산(蓋馬山), 불함산(佛威山), 노백산(老百山), 대산(大山), 백두산(白頭山) 등이 있는데 산 정상에 눈이 덮여 멀리서 보면 머리 위에 흰 눈을 이고 있어 노인의 백발에 비유했고 오랜 기간 흰 눈이 덮여 있으므로 장백산, 백산으로도 불려왔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이라는 이름보다는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원래는 화산활동을 하는 산이었으나, 이미 250년 전에 활동을 멈춘 사화산에 속한다. 백두산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국가 급 보호구에 속한다. 전체 면적 중 1/3은 중국 영토에, 2/3는 북한 영토에 속한다.

## 2. 묘향산

높이 1,909m이다. 묘향산맥의 중부에 있는 산으로 11세기 초부터 산세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산이라 하여 묘향산이라 불렀다. 예로부터 한국 5대 명산의 하나이자 조선8경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연주고을에 속한 산이라 하여 연주산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려 중엽 이후에는 묘향산의 바위들이 희고 정갈하다는 뜻에서 태백산이라고도 하였다.

비로봉 북쪽인 희천시 부흥리·유중리(류중리)·향천리 지역에 속하는 반야골·원명골·향천골 일대를 구향산이라 하며 보현사가 있는 묘향천 골짜기 일대를 신향산이라고 한다. 지역적 개념에서는 신향산을 내향산으로, 구장군과 영원군 일대를 외향산이라 부른다. 묘향산이라 하면 흔히 풍치가 가장 뛰어난 신향산 일대를 말한다.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청천강 기슭까지, 동쪽으로는 대동강 기슭까지 뻗은 산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묘향천·백령천·내창강·원명천 골짜기를 비롯한 수많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봉우리는 진귀봉(1,832m)·원만봉(1,795m)·향로봉(1,599m)·오선봉(1,365m)·범왕봉(1,388m)·문필봉(1,531m)·백산(1,599m)·칼봉(1,530m)·형제봉(1,229m) 등이다.

중생대와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여러 차례 지각운동과 풍화작용으로 청천강 골짜기를 비롯한 주변지역이 내려앉으면서 비로봉 일대는 더 높이 솟고 골짜기들은 더 깊어져 지금의 산 모양을 이루었다. 기반암은 연화산암군에 속하는 흑운모화강암이며 주변에는 원생대 퇴적암과 고생대 석회암이 분포한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세지 않으며 비교적 따뜻하다. 연평균기온은 8.3℃, 1월 평균기온은 -11.6℃, 8월 평균기온은 23.7℃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3대 다우지역에 속한다. 대표적인 하천은 묘향천으로 강선봉에서 발원하여 향산군 향암리에서 청천강으로 유입된다. 그밖에 외향산 일대에서 흐르는 백령천, 구양산 반야골에서 흐르는 부성천, 원명골에서 흐르는 원명천, 향천골에서 흐르는 진명천이 있으며 상원동과 만폭동 사이의 묘향천 기슭에 있는 묘향산약수가 유명하다.

## 3. 천지

백두산 정상의 호수(화구호, 칼데라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눈비가 녹은 물과 지하수가 모여 큰 자연 호수가 되었다. 이 호수를 옛날에는 용궁담(龍宮潭), 용왕담(龍王潭), 용담(龍潭), 대지(大池), 대담(大潭)으로 불렀고 근세에 들어와서 천지로 불려왔다.

천지의 둘레길이는 14.4km, 평균수심은 213.3m(최대 깊이는 394m)로 수량이 약 19억 55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호반에는 수생식물을 포함하여 150여 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천지 속에는 식물성 부유 생물 5종, 작은 동물 및 곤충류 4종, 물속식물(이끼류) 등의 생물만이 살고 있을 뿐 그 어떤 물고기도 살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물의 성분이나 수온 먹이 조건 때문이 아니고 천지의 물이 흘러내리는 달문에서 1km정도 지나면 높이가 무려 68m인 장백폭포(중국 측)가 있어 이로 인해 물고기가 천지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산의 분화구인 천지는 해발 2,20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천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원형을 띠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0km<sup>2</sup>, 호수 주위 길이가 13km 정도이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놓여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평균 수심은 200m 인데, 가장 깊은 곳은 373m나 된다. 중국에서 가장 깊은 화구호(칼데라호)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연평균기온은  $-7.3^{\circ}\text{C}$ , 평균수온은  $0.7\sim 11^{\circ}\text{C}$ 이며, 11월에 얼어붙었다가 6월이 되어야 녹는데, 얼음의 두께는 1.2m에 이른다. 천지는 수질이 매우 깨끗하여 먹을 수도 있으며, 주로 지하수와 강수로 채워진다. 하지만 이곳은 기후가 불규칙하고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자주 발생해서 모든 여행객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백두폭포(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 함)

높이 18m, 폭 0.8m이며 백두산의 주봉인 병사봉(장군봉)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거리에 있다. 백두산의 화산작용으로 분출한 용암이 골짜기로 흘러들어 쌓이면서 계단이 생겨 형성되었다. 폭포 벽의 바위는 유문암이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사기문폭포와 합류하여 거의 직선으로 된 급경사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이곳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폭포 밑에는 둘레 20.1m, 최대 물깊이 0.75m의 타원형 웅덩이가 있다.

크게 두 갈래의 물줄기로 나뉘어져 있고, 떨어진 물은 송화강(松花江)으로 유입된다. 높이가 60여 미터의 웅장한 폭포로, 200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중국 북방의 폭포들은 모두 겨울에는 얼어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오로지 장백폭포만은 일 년 내내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마치 용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비룡폭포(飛龍瀑布)'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Ⅲ. 백두산 지역 동굴

#### 1. 룡문대굴

평안북도 구장군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석회동굴로 지난 84년 초 발견됐다. 총연장길이는 6km이며, 석회동굴의 규모와 내부의 아름다움은 세계적 수준이다. 북한의 새 관광명소 룡문대굴의 '천상락원' 부분이다. 청천강 유역에 위치한 평안북도 구장군의 룡문대굴은 4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의 용해·용식과정으로 생겨난 천연동굴이다. 원굴 2개와 가지 굴 30여개로 이뤄진 대굴은 길이가 6Km에 이른다.

구조가 매우 복잡해 가지 굴만도 30여개에 달한다. 또한 이곳에는 40~50m의 폭포가 있어 장관을 이룬다. 경치가 절경이라 「지하금강」으로 일컫는다. 룡문대굴의 구조는 크게 두 갈래로 되어 있다.

굴입구인 만물동에서 석화동-절벽동-룡문광장-목화밭-광명동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축과, 목화밭에서 시작하여 금강굴-지모굴-보석동으로 이어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난 축이 그것이다.

그리고 서동축의 금강굴에서 분기된 노간주동은 북쪽방향으로 뻗어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동서축의 룡문광장에서 남쪽방향으로 뻗어 나온 가지굴인 백화동과 형제동의 밑을 지나간다.

따라서 룡문대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축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난 축 등 2개의 기본굴과 함께 지하 동굴 밑에 다시 지하 동굴이 지나가는 2단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동굴의 내부는 어느 곳이든지 절경이 아닌 곳이 없지만 특히 굴 초입의 만물동을 비롯해 룡문광

장, 보석동, 금강굴 등의 경치가 빼어나다.

만물동은 이름 그대로 종유석과 석순이 천만가지의 모양을 이루어 금강산의 만물상을 방불케 하며 룡문광장은 총면적이 3,500㎡에 높이가 30-40m로 시원스런 지하광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6개의 가지굴이 뻗어나 있다. 용문대굴의 첫 관문인 만물동은 연못이 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회암 용수가 물 가운데 굳어있고, 수정 인 듯 한 하얀 꽃을 피우게 한다.

만물동의 다음인 석회동은 좌측 벽과 도랑으로 이루어져있다. 이곳은 불가사리한 자연의 조각품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보석동은 높이가 15-20m, 너비와 길이가 각각 30~35m 되는 넓은 공간에 석화와 석순들이 무수히 드리워져 마치 보석세계를 보는 것 같이 황홀하다.

석회동의 다음이 철벽동. 여기에는 높이 10m나 되는 돌꽃으로 장식되어진 벽이 여러 개 층을 이루고 있어 장관이다.

그리고 금강굴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기암괴석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물 흐름소리가 들려오는 천길 벼랑 끝짜기 등 신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철벽동을 나와 서측의 꼭대기에 오르면 넓은 광장에 이른다. 수백 미터 깊이의 지하 동굴에 있는 용문광장은 6개의 지굴로 통하고 있다.

## 2. 백령대굴

백령대굴은 평안북도 구장군 대풍리에 있는 석회동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1954년 구장고교생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역만으로도 총연장 길이 5km이며 10여개의 지굴로 되어 있다. 백령대굴은 아직 출구가 발견되지 않은 동굴이다.

이 동굴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는데 950m의 본굴 외에도 2500m의 미로굴, 400m의 산해굴을 비롯한 14개의 크고 작은 굴로 이루어져 있다.

본굴 안에는 맘모스를 연상케 하는 맘모스동, 두 그루의 석순이 5m 높이로 대리석 기둥처럼 서 있는 형제탑, 비룡담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샘물이 있는 동굴인 모험동 등이 있다.

본굴은 동굴의 길이는 약 950m로 형성되었고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동굴일 뿐만 아니라 경관과 웅장함은 백령대굴의 거굴 중에서도 으뜸이다. 동굴의 입구에 있는 백령문으로부터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공룡과 같은 석순을 볼 수 있다.

또 길이가 72m나 되는 넓은 구역인 명사십리, 폭포 모양의 종유석이 있는 폭포동, 삼태자 석순, 만탑동, 포도동 등이 연이어 나타난다. 본굴의 명사십리 왼쪽에서 시작되는 미로굴은 길이가 2.5km로서 그물코처럼 이어진 7개의 작은 굴과 연결되어 있다.

미로굴(1500m)은 동굴의 입구가 극히 좁아서 안쪽 깊은 곳까지 탐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미로굴은 여러 개의 동굴로 얽혀져있다고 한다.

산해굴(400m)의 최대 특징은 동굴의 내부와 외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온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쥐가 다수 살고 있기에 '박쥐동'이란 이름이 있다. 또한 동굴 내부에는 큰 연못이 있다.

산해굴은 계단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길이는 약 400m이다. 산해굴에는 박쥐가 많이 산다는 박쥐굴

을 비롯하여 함절골, 산호동, 비룡담 등의 절경이 있다.

이 굴에도 봉소동, 불로정, 설화동 등의 절경이 펼쳐진다.

### 3. 동룡굴

평안북도 영변군 용산면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서 주동(主洞)의 길이는 1,463m이고, 평균 너비 40m이며, 평균 높이 20m이다. 평남 개천군 북면(北面)과의 도계(道界) 가까이에 위치하는 운학참(雲鶴站) 마을에 있다. 동룡굴이 있는 용산면과 신현면(薪峴面) 일대는 평남에서 계속되는 캄브리아기의 석회암지대로서 각처에 카르스트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룡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전설에 의하면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때 나라가 망함을 서러워하여 불상을 안고 속세를 하직한 운림선사(雲林禪師)가 낭림산맥으로 들어갈 때, 홀연히 서운(瑞雲)이 걷히고 동룡이 승천한 자리에 동구(洞口)가 나타나 들어가 보니 몸을 감출 수 있었으므로 불상을 모시고 일생을 마쳤기에 동룡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는 부근 사찰의 많은 법승과 주민들이 이 굴에서 왜군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동룡굴은 미국 켄터키주(州)에 있는 매머드 석회암동굴에 비길 만한 규모와 절경을 이루는 동굴이다. 종유석(鍾乳石) · 석순(石筍) · 석주(石柱) 등의 발달이 두드러지며 석회화(石灰華)의 침전물에 의하여 다수의 계단은 모양의 용식지형(溶蝕地形)의 소지(小池)가 발달되어 있다. 동구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운림선사가 몸을 의지하였다는 세심동(洗心洞)을 비롯하여 벼랑 위에 있는 박쥐굴, 넓이 1,000여 평에 이르고 미륵탑 · 관음탑 등 경승지가 있는 다불동(多佛洞), 그리고 길이 110m, 너비 5~20m의 용식지인 용연동(龍淵洞)과, 석주가 많은 부처를 연상케 하는 칠불동, 넓이 1,400평으로 동룡굴에서 가장 넓은 금강동(金剛洞)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특히 금강동은 경치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벽면에는 석회화가 폭포수처럼 응결되어 있고, 내부에는 극락문 · 지옥문 · 해탈문 · 낙타암 등의 명소와 금강산의 만물상(萬物相)을 연상케 하는 만물상이 있어, 지하금강이라는 별칭 그대로 신비로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의 발달이 두드러지며, 계단은 모양의 작은 못이 많다. 동룡굴 가운데서 가장 넓은 금강동은 그 경치가 뛰어나 '지하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신비로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 IV. 길림지역

길림성(吉林省)의 약칭은 길(吉)이다. 중국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평원의 북지에 자리 잡고 있다. 길림성은 남쪽으로는 요녕성(遼寧省), 북쪽으로는 흑룡강성(黑龍江省), 서쪽으로는 내몽골(內蒙古)자치구와 잇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하고 있다.

전 성(省)의 면적은 19만 km<sup>2</sup>이며 인구는 2,728만 명으로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시버족 등 민족들이 살고 있다. 전 성에는 8개 지구급 시와 1개 자치주, 20개 현급 시, 18개 현, 3개 자치현, 19개 시 관할 구(區)가 있다. 성 소재지는 장춘시(長春市)이다.

길림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만족, 몽골족, 조선족 등 소수민족들의 활동, 집거구 이었다. 주나라와 진나라 때 장백산 북부지역에서 생활했던 숙신(肅慎)부족<漢, 쑤시시기에는 읍누(挹婁), 후위(後魏) 때에는 물길(勿吉)로 불려졌음>이 이 지역의 원시주민이었다. 당나라 때 일찍 길림성 동부산구에 발해국을 건립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는 금나라(여진족이)를 세웠다. 길림성 경내의 서부에서는 일찍 선비(鮮卑)족, 거란(契丹)족, 달단(韃靼)족 등이 생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몽골족 계열이었다. 북송은 요나라를 세우고 발해국을 멸망시켰는데 그 세력은 길림성의 동부 접경지역에 까지 확장되었다. 원(元)나라 때에 길림성은 행정상으로 요양성(遼陽省)에 속했으며 명(明)나라 때에는 누르간도사(奴爾干都司)로 재편되었다. 청나라 때에 와서는 녕고탑(寧古塔)장군 관할구로 불려 지다가 후에는 길림장군 관할구로 바뀌었다. 광서 33년 (기원 1907년)에 길림성이 세워졌다.

## 1. 지 형

지세는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가 낮는데, 산지, 구릉과 평원 3대 유형을 모두 갖추고 있다. 평원이 전 성 면적의 30-40%를 차지하고 산지와 구릉이 60%를 점한다. 주요한 산맥으로는 장백산(長白山), 길림하달령(哈達嶺), 장광재령(張廣才嶺), 용강산(龍崗山), 노령(老嶺), 대흑산(大黑山) 등이 있다. 그 중 장백산 주봉인 백운봉은 동북의 최고봉으로 해발이 2,691m이다. 주요 평원과 분지로는 송늪(松嫩)평원, 송요(松遼)평원, 연길(延吉)분지, 훈춘(琿春)분지와 둔화(敦化)분지 등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송화강(松花江), 압록강(鴨綠江), 도문강(圖們江), 목단강(牡丹江), 수분하(綏芬河)가 있다. 호수로는 송화강 연안의 송화호(松花湖)-풍만댐(豐滿水庫)이 가장 크다. 그 외 월량포(月亮泡), 사간포(查干泡)와 대포소포(大布蘇泡)도 유명하다. 장백산(長白山) 주봉 밑에 있는 장백산 천지(백두산 천지)는 중, 조 양국간 국경호수이며 수면의 해발고는 2,194m, 면적 9 km<sup>2</sup>, 유명한 화산 호수이다.

## 2. 주요 관광명소

대부분 장춘(長春), 길림(吉林), 송화강(松花江)과 장백산(長白山)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가중점 풍경명승구(國家重點風景名勝區)로는 송화호(松花湖)와 팔대부(八大部)-정월담(淨月潭)이 있다. 이 밖에 흠날리는 안개에 쌓여 선경(仙境)을 방불케 하는 장백산(長白山) 천지가 있으며 송화강(松花江) 동쪽기슭에 위치한 용담산(龍潭山) 사슴사양장이 있다.

송화호: 吉林市 동남쪽 50km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송화강 상류에 풍만(風滿)수력발전소 댐이 들어서면서 형성되었다. 동북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이다.

봄이 되면 호수가는 숲을 이룬 나무들로 녹음이 우거지고 수면에서는 무수한 돛배들이 여유를 부리는데 수려한 풍경은 태호(太湖)나, 동정호(洞庭湖)의 아름다움과 비한다. 여름이면 파도를 가르며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일광욕을 만끽할 수도 있다.

또 쾌속정을 타고 호심도(湖心島)를 지나 20km쯤 거슬러 올라가면 오호도(五虎島)와 호수를 한 눈에 굽어 볼 수 있는 관호대(觀湖臺)에 도착하게 되는데 호수낚시도 가능하다.

가을이 되면 하늘이 더없이 높아지면서 공기도 한층 맑아진다. 40여 개의 산봉우리들에 연이어 울

곳곳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장관을 이룬 모습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겨울이면 대지는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이는데 어느덧 수면이 팡팡 얼어붙고 나무는 소복으로 단장한다. 이 때면 아이스 요트와 눈썰매, 사냥, 얼음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팔대부-정월담풍경구(八大部-淨月潭風景區): 장춘시 동남쪽 교외에 위치해 있으며 기복을 이룬 산악지대와 조용한 호수, 넓은 삼림으로 구성되었다. 삼림공원은 꽃사슴과 자주 빛 담비를 사육하고 인삼재배도 병행한다. 녹음으로 우거진 공원 안에는 분수 연못과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고 일각에는 콘도와 놀이 공원이 있다. 정월담에는 마름(菱角)과 연꽃(春蓮)이 자라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뱃놀이와 낚시, 수영 등을 즐길 수 있고 겨울철에는 스키, 썰매, 아이스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다.

## V. 길림지역 동굴

### 1. 관마용동

관마용동은 길림시 관내의 반석시 경내에 위치하여 있다. 길이 약 200m, 가장 높은 곳은 30m, 낮은 곳은 2m이며 총면적이 약 1200평방미터이다.

동굴 내는 6개의 널찍하고 웅위한 대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청 내에는 동굴을 받쳐주는 종유 석주가 있으며 7m높이, 15m높이의 석암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동굴 내에는 하나의 넓이가 2m, 깊이가 3m인 압하가 동굴의 깊은 곳까지 연장되어 있다. 각 청의 경관은 천자만태이다. 사람, 짐승, 신불, 보탑, 말, 사자 등 각종 도안이 동굴의 벽에 새겨져 있다.

## VI. 결 론

이상으로 백두산 지역과 길림지역의 동굴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문헌을 찾아서 미흡하지만 여기 소개 하였다.

평안북도 구장군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지하석회동굴인 룡문대굴은 총연장이 8km에 달하며 구조가 매우 복잡해 가지 굴만도 30여개에 달한다.

이 동굴의 내부는 어느 곳이든지 절경이 아닌 곳이 없지만 특히 굴 초입의 만물동을 비롯해 룡문광장, 보석동, 금강굴 등의 경치가 빼어나다.

만물동은 이름 그대로 종유석과 석순이 천만가지의 모양을 이루어 금강산의 만물상을 방불케 하며 룡문광장은 총면적이 3,500㎡에 높이가 30-40m로 시원스런 지하광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6개의 가지굴이 뻗어나 있다.

보석동은 높이가 15-20m, 너비와 길이가 각각 30~35m 되는 넓은 공간에 석화와 석순들이 무수히 드리워져 마치 보석세계를 보는 것 같이 황홀하다.

그리고 금강굴은 규모가 클뿐 아니라 기암괴석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물 흐름소리가 들려오는 천길벼랑 골짜기 등 신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백령대굴은 평안북도 구장군 대풍리에 있는 석회동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동굴은 여

러 갈래로 나뉘지는데 950m의 본굴 외에도 2500m의 미로굴, 400m의 산해굴을 비롯한 14개의 크고 작은 굴로 이루어져 있다.

본굴 안에는 맘모스를 연상케 하는 맘모스동, 두 그루의 석순이 5m 높이로 대리석 기둥처럼 서 있는 형제탑, 비룡담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샘물이 있는 동굴인 모험동 등이 있다.

또 길이가 72m나 되는 넓은 구역인 명사십리, 폭포 모양의 종유석이 있는 폭포동, 삼태자 석순, 만탑동, 포도동 등이 연이어 나타난다. 본굴의 명사십리 왼쪽에서 시작되는 미로굴은 길이가 2.5km로서 그물코처럼 이어진 7개의 작은 굴과 연결되어 있다.

평안북도 영변군 용산면에 있는 석회암 동굴은 캄브리아기의 석회암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 동굴로, 주동(主洞)의 길이는 1,463m, 평균 너비 40m 가량이며, 높이는 평균 20m에 이른다.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의 발달이 두드러지며, 계단논 모양의 작은 못이 많다. 동룡굴 가운데서 가장 넓은 금강동은 그 경치가 뛰어나 '지하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신비로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 참고문헌

[www.cavekorea.com](http://www.cavekorea.com)

<http://myhome.naver.com/yichoe/>

<http://www.hotchina.co.kr/>

<http://nk.chosun.com/tour/tour.html?ACT=TourPlace09>

[http://www.startour.pe.kr/local/china/china\\_inform\\_JIL.htm](http://www.startour.pe.kr/local/china/china_inform_JIL.htm)

<http://www.koramt.co.kr/rem/baikdu.html>

<http://myhome.naver.net/yichoe/dong/17basementpool.jpg>